

김현욱 총괄대표에게 묻습니다!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동안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 겁니다.

10일(월), 김현욱 총괄대표 명의의 대자보가 현장에 붙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총괄대표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대표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총괄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 최선 아닐까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겠다면, 노동조합이 묻겠습니다.

첫째, 총괄대표는 “회사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입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 먼저 사고를 막지 못한 회사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노동조합의 재발방지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적정인력은 여전히 비용문제라서 결정 권한이 없습니까? 보전을 외주처리 할 권한은 있고, 신규채용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까? 이번 중대재해는 인력부족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총괄대표는 “동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는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 전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사고가 난 뒤에야 인터록과 LOTO를 긴급하게 설치하면서, 왜 10년전 유사한 사고 이후 인터록과 안전조치는 하지 않았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비용 문제였다고 판단했습니까? 300대가 넘는 MCT 설비에 인터록을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었습니까?

비용의 문제니, 총괄대표의 권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해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니 총괄대표로서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안전조치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 긴급 산보위 1번 안전이 바로 인터록 설치 요구였습니다.

셋째, 총괄대표는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회사가 준비한 긴급 안전조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화를 하다보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사간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회사 결정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설비도 회사가 관리했습니다. 인력도 회사가 결정했습니다. 외주도 회사가 결정했습니다. 안전관리도 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니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는 겁니까?

김현욱 총괄대표의 말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숙해야 할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길은 사망한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뿐입니다.

2026년 08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